勝의 후손으로 영제靈帝 말에 황건적黃巾賊을 쳐 도원결의桃園結義한 관우關羽·장비張飛와 함께 공을 세우고 일어나 삼고초려三顧草廬로 제갈양諸葛亮을 얻어 천하를 삼분三分할 계책을 세웠다. 조조가 죽고 조비曹丕가 헌제獻帝를 폐하여 즉위하자 성도成都에서 한漢의 국호를 이어 황제가 되고 천하를 통일하려다, 의형제를 맺은 관우가 오吳를 치다가 전사하자 오를 정벌하러 나가 패해 백제성白帝城에서 죽었다. 연호는 장무章武이고 재위 3년이다)를 섬겨 황후가 되고 아들을 낳아 후황제後皇帝(촉한의 말주末主로 후주後主라고도 하며, 유비의 장자, 이름은 선禪, 자는 공사公嗣, 아명은 아두阿斗이다. 유비에 이어 즉위하여 제갈양의 도움으로 선치善治하였으나, 제갈양·장완蔣琬·동윤董允 등 명신이 죽자 환관宦官이 전횡하고 국력은 쇠락해 위魏나라가 침공하자 항복하고 낙양洛陽에 끌려가 안락공安樂公으로 강봉되었다. 재위 41년에 건흥建興·연희延熙·경요景耀·염흥炎興 등의 연호를 썼다)가 되게 하노라."

척희가 사례하고 물러 나가니 염라왕이 조왕趙王 여의如意(한고조 유방의 4남)를 불러들여 일렀다.

"너는 죄 없이 흉독한 여후呂后의 손에 죽었으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리오. 너는 세상에 나가 화흠華歆(삼국시대 위魏 평원平原 고당高唐 사람으로 자는 자어子魚이고 시호는 경敬이다. 후한말 효렴孝廉으로 천거되어 상서랑尙書郞이 되고 헌제 시에 예장태수豫章太守로 선정을 베풀었다. 황건적의 난 후 강동江東을 점거한 손책孫策에게 가 예우를 받다가 조조曹操에게 초빙되어서는 의랑議郞이 되고 그 모신 순욱荀彧을 대신해 상서령尙書令이 되었다. 조비曹丕가 등극하자 사도司徒로 발탁되고 명제明帝 시에는 태위太尉로서 박평후博平侯에 봉해졌다)이란 사람이 되어 조조曹操를 좇아 상서령尙書令 벼슬로 있다가 조조가 복황후伏皇后를 죽일 때에 네가 갑사甲士를 거느리고 궁중에 들어가 협벽夾壁 가운데 숨어 있는 복후를 찾아내어 네 손으로 그 머리채를 끌고 나와 무수히 곤욕困辱하여 너의 한을 풀게 하노라."

이에 여의가 감복하여 무수히 사례하고 물러 나갔다. 염라왕이 다음으로 또 정공丁公(한漢의 설薛 사람으로 이름은 고固, 영포英布의 동모이부제同母異父弟이다. 항우의 휘하 장수로 유방이 위급할 때 살려 보냈는데, 후일 천하를 얻고서는 유방이 그가 항우에게 불충했다고 죽였다. 그 형 계포季布는 자주 한왕을 군핍窘乏케 했으나 사면하여 낭장郞將을 삼고, 고조로 즉위하여 정공이 알현하니, 항우로 하여금 천하를 잃게 한 것이 정공이라 하고 마침내 죽였다는 고사가 몽구蒙求의 표제標題 정공피륙丁公被戮이 되었다)을 불러들였다.

"너는 한왕漢王이 위태한 때에 이를 핍박치 아니하고 긍측矜惻히 여겨 놓아 보내었거늘, 한왕이 그 은혜는 생각지 아니하며 도리어 간사한 말로 너를 그르다 하고 죽였으니 어찌 분한忿恨치 아니하리오. 너를 세상에 내어보내나니 성명은 왕랑王朗(삼국시대 위魏의 담 사람으로 자는 경흥景興, 시호는 성成이다. 간의대부諫議大夫를 거쳐 사공司空이 되고 낙평향후樂平鄕侯에 봉해졌다가 난릉후蘭陵侯로 개봉되었으며, 역전易傳·춘추전春秋傳·효경전孝經傳·주관전周官傳·주의론기奏議論記 등을 저술하였다)이라, 조조를 섬기다가 조비가 헌제獻帝의 천자위天子位를 앗을 때에, 네 문제文帝(조비)의 중관衆官으로 더불어 헌제를 무수히 핍박하여 네 원통함을 풀게 하노라."

이렇게 말하니 정공이 고두叩頭로 사은謝恩하고 물러 나갔다. 이에 염라왕이 소하蕭何를 불러들여 일렀다.

"너는 처음에 한신을 천거하여 한왕의 대장이 되어 삼진三秦(항우가 관중關中을 삼분하여 진의 항장降將에게 나누어 준 옹雍·색塞·적翟 세 나라)을 평정하고 항우를 멸하여 천하를 얻게 한 후, 한왕이 한신을 의심하되, 네 한 마디 구救한 말이 없고, 나중에는 간악한 여후와 동모同謀하여 한신을 죽였으니 세상에 너 같이 무상無狀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으리오. 너를 다시 사람 사이에 내어 보내나니 성명은 원소袁紹(후한 여남汝南 여양汝陽 사람으로 4대 공公의 명문 출신 원봉袁逢의 서자이다. 권신 동탁董卓이 소제少帝를 폐하려 하자 낙양에서 기주冀州로 달아나 군사를 일으켜 동탁 토벌의 맹주가 되어 거기장군車騎將軍 영사례교위領司隷校尉가 되었다. 그 후 헌제의 건안建安 5년에 조조와 자웅을 결하는 관도官渡의 회전에서 대패하여 병사하였다)요 자는 본초本初라, 하북河北(중국 황하 이북 지역의 통칭)을 웅거하여 조조와 싸우다가 여러번 군사가 패함에 분기를 이기지 못하고, 인하여 병이 되어 피를 한 말이나 토하고 죽은 후, 너의 세 아달도 다 조조의 손에 죽게 하여 너의 신의 없고 의리 없음을 징계하노라."

이를 듣고 소하가 다만 참괴慙愧한 빛을 띠고 물러 나갔다. 다음으로 염라왕이 진평을 불러들여 왈,

"네가 처음에 항왕을 섬기다가 배반하고 한왕에게 돌아오니, 한왕이 너로써 호군護軍 벼슬을 하임下任하매, 녹봉이 후하거늘 네 여러 장수의 황금을 받았으니, 네가 옛사람의 글을 읽고 어찌 청렴치 못하였으며, 또 여후는 국모國母이어늘 네 아자미(숙모) 도적질하던 수단으로 사통私通하였으니, 이는 윤상倫常의 죄인이요, 또 한신을 시기하여 한왕이 의심하는 틈을 타 간사한 꾀를 드려 모함하였으니 그 답지 않음이 어이 이에 이르뇨? 너를 세상에 내어 보내나니 성명은 양수楊修(후한 홍농弘農의 화음華陰 사람 양표楊彪의 아들이다. 효렴과孝廉科로 천거되어 낭중郞中이 되었다. 학문을 좋아하는 준재俊才로서 조조의 주부主簿가 되어 군호를 닭의 갈비뼈로 내린 조조의 뜻을 알아차리고 회군을 미리 준비하는 등으로 재주와 지략이 탁월하여 이를 꺼린 조조에게 주살되었다. 일찍이 그가 조조를 좇아 조아비曹娥碑 아래를 지나는데 그 비석 뒷면에 여덟 글자를 새겨 '황견유부외손제구黃絹幼婦外孫 臼라 한 것이 있는데 조조가 이를 해득지 못하고 양수에게 '그대는 아느냐'고 물었다. 양수가 안다고 하자 조조가, '아직 말하지 말라. 내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3십리를 가서야 조조가 해득하고 양수에게 풀라 하니 양수가 '황견黃絹은 색사色絲이니 색사色絲는 절絶 자字이고, 유부幼婦는 소녀少女이니 묘妙 자, 외손外孫은 파자로 획을 떼어 여자女子이니 호好 자, 제구臼는 매운 것을 받는 수신受辛이니 사辭 자로서 소위 절묘호사絶妙好辭—절묘하게 좋은 말글—입니다 하니, 조조가 나의 뜻과 똑같다 하였다. 이를 보고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없는 자를 깨우치는 데 3십리를 갔다 하였다. 조조가 한중漢中을 평정하러 갔다가 돌아오고자 하여 계륵鷄肋으로 군호를 내니 아무도 깨우치지 못하는데 양수가, 닭의 갈비는 먹어도 소득이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인즉 공께서 돌아갈 계책을 결정하신 것이다 하였는데 조조가 과연 회군하였다. 또 항상 출타할 때는 조조가 외사外事를 간여하고 있는 데에 대해 헤아려 이를 역으로 한 대답을 써 두고 집을 지키는 아이를 시켜 만약 영이 나오거든 이에 의하여 통보하라 하니, 조조가 그 미리迷離한 가운데서 밝게 살펴 알아채는 모양을 괴이쩍어 하다가, 이로 말미암아 양수를 시기하여 뒤에 다른 일로 무함誣陷하여 죽였다. 양수는 글도 잘하여 지은 명문이 15편이었다)요 자는 덕조德祖라, 조조의 막하幕下에 있어 벼슬이 주부되어, 약간 총명과 재주가 있음으로 하여 항상 조조가 시기함을 받다가, 조조가 한중漢中에 가 유현덕劉玄德과 싸우다가 크게 패하여 돌아오려 할 때에, 계륵鷄肋이라는 두 글자 군호軍號의 비밀한 사기事機를 누설하였다 하여 네 머리를 베어 군중軍中에 효시梟示케 하노라."

하니 진평이 한 마디 발명發明도 못하고 물러났다. 염라왕이 또 허부許負(한초漢初에 관상을 잘 본 노파로 후세 관상가의 대명사가 되었다. 주아부周亞夫의 상을 보고 재상이 되지만 결국 굶어죽을 것이라 했고, 한 고조에 의해 명자정후鳴雌亭侯에 봉해졌다)를 불러들여 꾸짖어 왈,

"세상의 술사術士는 다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요괴妖怪로운 무리라 네 위왕魏王 표豹(성명은 위표魏豹, 진말한초 위魏나라 위구魏咎의 아우로 전국시대 위나라 공자公子였다. 그의 형 위구가 위왕으로서 장감章邯에게 패망하자 서인庶人이 되어 초회왕에게 원병을 청해다 싸워 20개 성을 수복하고 위왕이 되었다. 그 후 항우를 등지고 유방에게 귀부하였다가 잠시 후 또 반하니 유방이 한신을 시켜 치고, 포로로 잡아서는 형양滎陽을 지켜 다스리게 하였는데, 초나라가 포위해 들어옴이 급한 상황에서 유방이 보낸 장수 주가周苛가 그 한결같지 않음을 보고 죽여버렸다)의 상이 좋지 못한 줄 알고도 항백項伯(진말秦末 하상下相 사람으로 항우의 숙부이며 이름은 전纏, 백伯은 그 자이다. 항우를 좇아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 좌령윤左令尹이 되고, 홍문鴻門의 연회에서 위험에 빠진 유방을 구한 일로 한 건국 후 사양후射陽侯에 봉해지고 유劉씨로 사성되었다)의 말을 거역치 못하여, 후일에 천자가 되리라 하여 위왕 표로 하여금 한왕을 배반하고 항왕을 돕다가 나중에 한신에게 패하여 나라를 잃어 버리고 몸이 서인庶人이 되게 하였고, 더구나 한신의 수한이 72세요 고종명考終命하리라 하더니, 어찌하여 한신이 32세에 참혹히 죽었나뇨? 이는 네가 상보는 법으로 남을 해롭게 함이라, 너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게 하여 보내나니, 성명은 방통龐統(후한말 양양襄陽 사람으로 제갈양의 동향인이며 그의 추천으로 유비의 군사軍師가 되었다. 와룡臥龍 제갈양과 명성을 나란히 하여 봉추鳳雛로 호칭되고, 공을 다투어 세우려다 낙성 城에서 화살을 맞아 죽었는데 그 죽은 곳을 새끼 봉황이 떨어졌다 하여 낙봉파라 한다. 방통기龐統騎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유비가 방통이 하도 오죽잖음을 보고 뇌양현령 陽縣令을 시켰다가 고을이 다스려지지 않으므로 면직시켰다. 이에 오吳나라 장수 노숙魯肅이 유비에게 편지를 보내 '방사원은 백리의 재목이 아니니 그로 하여금 정치의 중심에 두고 별가別駕의 직임을 맡기면 비로소 그 천리마의 발을 펼 것이다' 한 데서 유래하였다)이요 자는 사원士元이라 유현덕의 모사謀士가 되어 서촉西蜀을 치다가 낙성 城(사천성四川省 광한廣漢시 북쪽에 있던 낙현 縣의 성) 땅 낙봉파落鳳坡에서 장임張任의 화살을 맞아 죽게 하노니, 나이는 한신과 같이 32세요 장임은 곧 위왕 표의 후신이니 너는 장차 그 누구를 원망하리오. 모다 너의 자취自取함이니라."

하니 허부가 유유唯唯히 순종하고 물러나갔다. 염라왕이 다음으로 팽월彭越을 불러들여 말했다.

"너는 염파廉頗(전국시대 조趙나라 명장으로 혜문왕惠文王 때 제齊나라 군사를 격파해 상경上卿이 되고 인상여藺相如와 더불어 문경지교刎頸之交를 맺으며 진秦이 조를 넘보지 못하게 하였다. 염파가 있으면 조나라가 전승하고, 그가 모함으로 실각하거나 망명하면 조가 외침에 시달렸다. 결국 초楚나라 수춘壽春에서 죽었다. 염파강식廉頗彊食이라는 성어가 있는데, 늙은 염파를 등용할까 시험하러 온 조나라 사신 앞에서 염파가 한 말 밥과 열 근 고기를 한 끼 식사로 먹어 보인 고사이다)와 이목李牧(전국시대 조趙나라 명장으로, 흉노匈奴와 진秦을 대파하여 무안군武安君에 봉해졌다. 진에게 매수된 곽개郭開의 모함으로 살해되고, 그가 죽은 후 조나라는 진에게 멸망했다. 이목이 북변을 지킬 때 벌안문伐雁門에 상주하며 편의대로 관리를 두어 저자의 조세를 모두 막부幕府에 실어다 놓고, 날마다 소를 잡아 군사를 먹이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히며, 봉화烽火를 신중히 하고 간첩을 많이 풀어 더불어 싸우지 않고도 망실함이 없게 하였다. 뒤에 흉노를 대파하니 이로부터 10여년 흉노가 조나라 북변을 범하지 못했다. 다시 그가 진나라 군사를 대파해 봉군封君되니 진나라가 부심하다가, 조의 폐신嬖臣 곽개에게 많은 금을 주어 이목이 모반한다 하게 하였다. 조왕이 그를 목베자 진이 드디어 조를 멸했다) 같은 장수라, 한왕을 도와 큰 공이 있거늘 무죄히 여후의 모해를 입어 죽었으니 어이 가련치 아니하리오. 너를 인간에 내어 보내나니, 성명은 유비劉備요 자는 현덕玄德이니 효경황제孝景皇帝(전한의 경제景帝 유계劉啓, 문제文帝의 장자로 재위 16년에 절검節儉과 애민으로 선정을 베풀어 그 부황 문제와 더불어 한나라의 태평성세 문경지치文景之治를 이루었다)의 각하閣下 현손玄孫이요 당당 제실帝室의 주윤胄胤이라, 관인대도寬仁大度한 충후장자忠厚長者 되리라.